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간호사신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제2024호 (1976년 12월 31일 창간) nursenews.co.kr 2019년 8월 29일(매주 목요일 발행)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법적근거 명시

간호사 비롯한 의료인 포함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지역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조항이 신설됐으며(2019. 1. 15.),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명시됐다(2019. 8. 19.).

지역보건법에 신설된 조항에서는 첫째,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을 명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 경과를 보면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2017. 7. 5.),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7. 12. 4.),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2017. 12. 15.)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후(2018. 12. 5.),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며(2018. 12. 6.),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018. 12. 27.)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2019년 8월 19일자로 공포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결정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2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확보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2019년 4월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 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 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넓힐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⑨ 끝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싣습니다.

*아래의 글은 ‘그것 나의 생명’ 주제로 실린 김영자 서울대 간호고등기술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고결한 이상 – 견실한 교양 – 진정한 박애정신
봄바람 꽃잎과 함께 방방곡곡 흩어지리라

어느 날 병원실습에서의 귀로였다. 새봄! 피곤한 나의 두 어깨를 번쩍 잡아 일으키는 부름이었다. 너무나 신선한 음성이었고, 너무나 다정스러운 부름 그것이었다.

언제나 찾아드는 언덕 좁은 비탈길을 지나 기숙사를 찾아드는 그 찰나,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네—네—하는 친구 하나. 이 석음(땅거미)의 어두움이 슬픔의 빛인 양 그 친구의 얼굴을 더욱 초라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친구의 옷은 성한 곳이 없었으며, 다리는 누르면 터질듯 부었고, 그 상처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 옛 어느 때는 그 친구도 버림받지 않는 어떤 품속에서 아양도 부리였고 귀염도 받았으련만, 오늘의 그 친구는 이 세상 넓다 하여도 그를 인정할 그 아무 무엇도 없고, 한자리 그의 몸 붙일 안식처조차 없는 친구… ‘죽겠어요’ 애원하는 눈동자, 그의 애석한 부르짖음.

나는 우선 그의 요구인 밥을 취사장에서 얻어 주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잠깐 기다리라 하였다. 급히 방에 뛰어 들어가서 약과 솜과 붕대를 주섬주섬 가지고 나와 응급으로 치료하여 주었다. 치료가 끝난 후 그의 깡통을 집어서 그 친구의 손에 쥐어주며 통속을 들여다보는 나의 얼굴에는 고소(쓴웃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발을 끌어 옮기었다. 그 친구는 ‘고맙다는 말’ 조차 말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의 사랑을 못 받고 배움을 얻지 못한 최대의 고독한 자였다. 그는 연상 통속과 그의 아픈 다리를 번갈아보면서 자못 만족한 듯한 기분을 보이는 듯하더니 묵묵히 기숙사 문을 나선다.

‘내일 모레 또 오너라’ 다정스럽게 말하였지만 그 친구는 고개만 약간 흔드는 듯하였다. 그 다음날 나의 눈앞에는 그 친구의 모습이 어리었다. 아니 확실히 나타났던 것일 게다. 비록 멀리 떨어진 그였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숙사를 힐끔힐끔 뒤돌아보며 어딘가 모르게 그의 모습은 도움을 요구하는 것만 같았다.

순간! 나는 손을 내흔들며 소리쳤지만 그는 나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듣고도 못들은 척 하였는가? 그는 이미 다른 길로 사라졌다.

적은 몸이나마 태워가며 어두움을 밝히는 촛불, 우리 그렇다. 분명히 우리는 선구자의 촛불을 받았지!

물도 넘치면 흐름과 같이 우리들의 고결한 이상과 견실한 교양과 진정한 박애정신은 이 새봄 봄바람에 날리는 그 꽃잎과 함께 방방곡곡에 두루 흩어지리라.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 도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1112곳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었다.

그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곳(64.5%)으로 수시평가가 최하위(E)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시평가 결과도 공개돼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KAKAO TALK
대한간호협회와
“카톡 플러스친구” 맺기
TALK 대한간호협회
플러스친구 등록방법
카카오톡 ▶ 상단 검색창 ‘대한간호협회’ 입력 ▶ ‘친구추가’ 클릭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간호뉴스, 교육정보, 공지사항 등을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을지대학교의료원 신입·경력 간호사 모집
을지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과 함께 할 열정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질 을지대학교의료원과 함께 희망차게 시작하십시오!

응시자격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경력간호사

지원서류
· 지원서 1부
·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신규간호사
(평점 및 전체 석차 필히 기재)

채용인원
· 을지대학교병원 : 000명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000명

주소 및 문의처
- 을지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 문의전화 : 042-611-3737, 3732
* 이메일 접수 : euljinurse@eulji.ac.kr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 문의전화 : 02-970-8184, 8186
* 이메일 접수 : vat06@eulji.ac.kr

지원서 접수
· 기간 : 2019.08.26.(월) ~ 09.22.(일)
· 지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emc.ac.kr)
· 이메일 접수

EMC 을지대학교의료원